

신문으로 보는 투자키워드

TDF

2050년 퇴직자 겨냥 주력상품 1년 수익률 62%

공모펀드 돋보기 / KB 온국민 TDF

퇴직연금 주력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KB자산운용의 'KB온국민TDF'가 높은 수익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자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해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인 TDF는 최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말 756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TDF 설정액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씩 설정액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설정액이 1조4600억원 늘어나 총 4조2000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펀드 특성상 안정적인 대형 운용사 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KB를 비롯한 상위 5개 대형사 설정액이 4조원에 육박한다. KB온국민TDF는 지난

22일 기준 설정액이 371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TDF 상품에는 통상 2030, 2040, 2050 등 목표 연도 숫자가 붙는다. 2030년에 은퇴할 예정이면 TDF 2030에 가입하면 된다. 나이와 은퇴 시점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목표로 잡아도 된다. 목표 시점이 만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매도하기 전까지 운용되는 만큼 필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결정해도 된다.

KB온국민TDF의 가장 큰 장점은 차별화된 '글라이드패스'다. 글라이드패스란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리는 경로로 TDF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타사 TDF와 비교했을 때 은퇴 시점이 먼 2050은 주식편입 비중이 가장 높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2020은 주식편입 비중이 낮아 은퇴 시점별(2020~2055)

KB온국민TDF펀드 개요

펀드	KB온국민TDF펀드	
설정일	2017년 7월 26일	
설정액	3,710억원	
운용성과	3개월	5.64%
(KB온국민	6개월	18.48%
TDF2050)	1년	61.60%

※ 3월 22일 기준. 자료=제로인

로 주식편입 비중 차이가 가장 크다. 이는 글로벌 TDF 시장 업계 1위인 뱅가드만의 운용 노하우다.

실제로 2035년 은퇴 예정자가 가입한 'KB온국민TDF2035'의 6개월 수익률은 10.8%에 이른다. 2050년 은퇴 예정자가 가입한 'KB온국민TDF2050'의 6개월 수익률은 18.48%로 전체 상품 중 가장 높다. 최근 1년간 수익률 역시 61.6%에 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상무는 "KB온국민TDF는 동일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

차이로 운용된다"면서 "투자자는 주식 편입 비중을 고려해 비교하거나 특정 유형이 아닌 전반적인 시리즈 수익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저 수준인 보수 역시 KB온국민TDF의 가장 큰 장점이다. 총보수 외 자산 배분형 펀드에서 중요한 피투자 펀드 보수도 업계 최저로 연 0.09% 수준이다.

현재 도입 논의가 활발한 디폴트 옵션 제도(사전 투자 지정 및 자동 운용)가 시행되면 TDF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TDF 펀드는 특성상 한번 가입하면 운용사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작은 보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복리 효과가 커 피투자 펀드 보수도 살펴봐야 한다.

김 상무는 "KB온국민TDF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최저 보수에 따른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글라이드패스와 안정적인 자산배분 원칙에 충실을 기해 장기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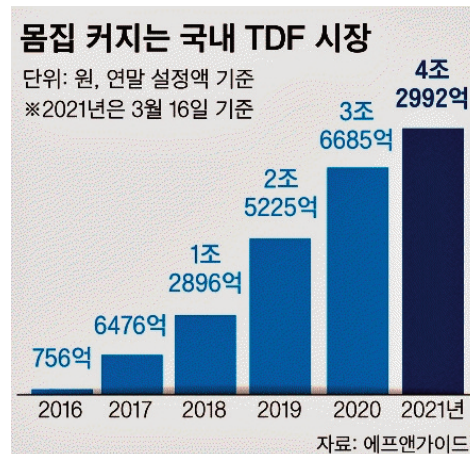
‘젊을 땐 주식, 중년엔 채권’ 은퇴 대비 펀드 TDF 뜬다

〈타깃데이트펀드〉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TDF는 날짜(은퇴 시점)를 겨냥한 펀드란 뜻이다.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을 기준 삼아 자산운용사가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 펀드로도 불린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말 756억원이던 TDF 설정액 규모는 지난 16일 기준 4조2992억원으로 불어났다. 4년여 만에 몸집이 60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6306억원이 유입됐다. 특히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며, 퇴직연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도 TDF가 주목받고 있다.

756억→4.3조 설정액 4년새 60배
퇴직연금 보완 상품으로 주목



TDF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비행기 착륙 시 경로)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반대로 운용하는 자산배분 방식이다. 예컨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는 주식 비중이 최대 80%에서 시작해서 20%까지 낮아진다. KB자산운용은 미국 TDF 1위 운용사인 뱅가드의 글라이드 패스 모델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한다.

TDF 상품엔 대개 2030, 2045 등의 목표연도 숫자가 붙어 있다. 2030년에 은퇴할 예정이면 TDF 2030에 가입하면 된다. 나이와 은퇴 시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을 목표로 잡아도 된다. 목표 시점이 만기를 의미하진 않는다. 투자자가 매도하기 전까지 운용된다.

TDF 상품을 고를 때는 각 운영사가 제시하는 단순 수익률만 봐서는 곤란하다. 수익률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KB온국민

TDF 2035’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0.58%로,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35’(14.01%)보다 수익률이 낮다. 반면 ‘KB온 국민 TDF 2050’(18.03%) 수익률은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50’(10.03%)를 앞지른다.

김영성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상무는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에 따라 운용사마다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라며 “무조건 단순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운용사의 글라이드 패스를 비교하고 TDF 시리즈 전반의 수익률을 함께 살펴본 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을 조정하는 상품 특성상 목표 시점까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d.co.kr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운용...한국인에 최적화된 연금펀드

이런 펀드 어때요? KB온국민TDF

퇴직연금 주력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미국 TDF 시장 1위 운용사인 뱅가드와 협업하고 있는 KB운용의 'KB온국민TDF(주식혼합-재간접형)'의 설정액은 지난 2월 5일 기준 3252억원으로 작년 초(1568억원) 대비 107.4% 증가했다. KB온국민TDF는 뱅가드의 검증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연금펀드다.

■ “알아서 포트폴리오 조정”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온국민TD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7.55% 수준(기준일 2월 25일)에 달한다. 이 TDF는 정해진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운용하며 하나의 펀드를 통해 전 세계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한다.

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주형준 펀드매니저는 “KB온국민TDF는 국내 투자자의 소득, 은퇴 시점, 투자성향 등 생애 주기를 반영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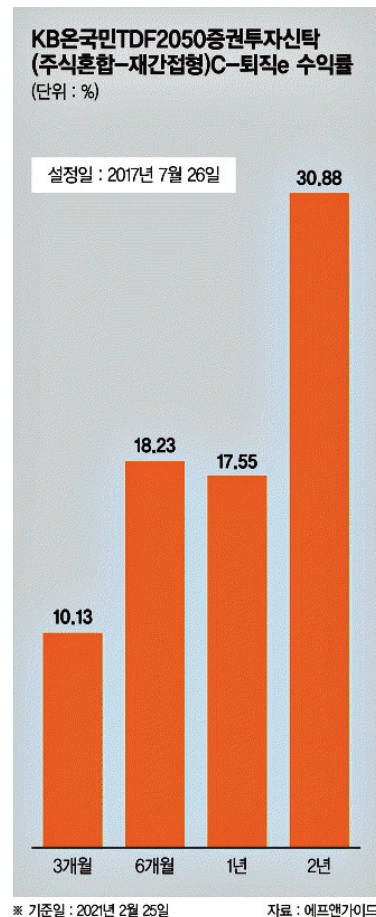
1년 수익률 20% 육박
설정액 1년새 107% 증가

뱅크드 생애주기모형 기반
포트폴리오 자동 조정 상품

주식 편입비 38~90%로 다양
투자성향 따라 운용 가능해

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KB온국민TDF는 최근 해외 투자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과 동시에 국내 투자자의 흥미요소를 고려해 10% 이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KB운용 TDF의 강점에 대해 “확실하게 차별화된 주식 비중 차이”라고 강조했다. KB운용은 TDF의 공격적 자산배분을 위해 주식 비중이 업계 최고 수준(90%)부터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주식편입비가 38% 수준 TDF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주 매니저는 “공격적 투자자 혹은 젊은

투자자들이 2050형 TDF에 투자할 경우 타사 대비 높은 주식 투자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반대로 보수적 또는 은퇴 시기가 가까운 투자자들은 2020형 TDF에 투자해 낮은 주식 비중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 원유나 금, 헤지펀드 등 고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정적 자산 위주로 구성, 이해하기 쉬운 투자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성장주가치주 등 특정 스타일 쏠림이 없어 시황에 따른 유불리 없이 다양한 시장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고 전했다.

■ “경기민감주·저평가 업종 주목”

KB온국민TDF의 올해 목표 수익률에 대해 묻자 주 매니저는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경기 회복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올해 목표 수익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면서 “KB온국민TDF는 펀드별 주식 편입비가 38~90%로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도 주식 및 채권 편입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투자 상품에서는 1년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 보다 본인의 위험선호성향에 맞는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 묻자 그는 경기 민감주와 저평가 업종에 주목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처럼 대형 IT 주식 중심이 아닌, 경기 민감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업종의 주식의 순환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채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수익은 낮겠으나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KB온국민TDF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 글라이드패스와 안정적 자산 배분 원칙에 충실해 장기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온국민TD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제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 펀드는 총 보수와 자산배분형 펀드에서 중요한 피투자펀드 보수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연 0.09% 수준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내 노후를 부탁해”...KB온국민TDF ‘인기’

글로벌 1위 뱅가드 노하우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도

퇴직연금 주력상품인 TDF(타깃데이트펀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설정액이 1조4600억원 늘어나 전체 규모가 4조 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 특성상 상위 5개 대형운용사의 TDF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 KB자산운용도 지난해에 TDF만 약 2000억원 설정액이 늘었다.

KB온국민TDF는 글로벌 1위 뱅가드의 운용 노하우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 생애 주기에 맞춰 포트폴리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영성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상무는 “KB온국민TDF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글로벌 1위 뱅가드의 운용 노하우를 담아 글라이드패스에 따른 주식비중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수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총 보수 외 자산

배분형 펀드에서 중요한 피투자 펀드 보수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연 0.09% 수준이다. 최저 보수로 인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간에는 작은 보수차이가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보수는 TDF상품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투자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

KB온국민TDF 시리즈 중 주식편입비중이 가장 높은 ‘KB온국민TDF2050’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0.50%로 동일 유형에서 수익률 1위다. ‘KB온국민TDF2035’는 12.51%, 주식 비중이 가장 낮은 ‘KB온국민TDF2020’도 7.87%로 우수하다.

KB온국민TDF는 동일

한 구성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강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50’,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20’을 투자하면 되고 방향성이 중립적인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35’에 투자하면 된다.

하재진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상위 5개사의 주력 TDF 상품이 운용된 지 3~4년을 경과하면서 상품별 특징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며 “해외 제휴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와 각 사별 생애 주기 투자모델(Glide Path)에 따른 주식편입비중을 살펴 본 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KB 온국민 TDF

- 하나로 완성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 글로벌 TDF 1위 Vanguard의 운용노하우와 저렴한 보수

KB 자산운용

커지는 은퇴 걱정... 지난해 TDF 설정액 1조4600억 증가

KB운용 'KB온국민TDF2050' 설정액 전년초대비 107% 늘어

직장인들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주력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찾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해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KB자산운용에 따르면 국내 TDF는 지난 한 해에만 설정액이 1조 4600억원이 증가

했다. 이달 현재 TDF전체 규모는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재진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상위 5개사의 주력상품이 운용된 지 3~4년을 경과하면서 상품별 특징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해외 제휴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와 각 사 생애주기 투자모델에 따른 주식편입비중을 살펴본 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KB운용의 'KB온국민TDF2050'이다. 이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0.50%로

동일 유형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설정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KB온국민TDF'의 설정액은 이달 5일 기준 3252억원으로 작년 초(1568억원) 대비 107.4% 증가했다.

이 상품은 미국 TDF 시장 1위 운용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검증된 생애주기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최적화한 연금펀드다. 정해진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운용하며 하나의 펀드를 통해 전 세계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khj91@ 김현정 기자

6개월 수익률 20% KB운용 'TDF 1위'

KB온국민TDF 시리즈 중 주식편입비중이 가장 높은 'KB온국민TDF2050'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0.50%(4일 기준)로 동일 유형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KB온국민TDF2035'는 12.51%, 주식비중이 가장 낮은 'KB온국민TDF2020' 역시 7.87%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구성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달리한 결과로 향후 강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50',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20'을 투자하면 되고 방향성이 중립적인 투자자는 'KB온국민TDF2035'에 투자하면 된다.

KB자산운용 측은 KB온국민TDF는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자평했다. 우선 글로벌 1위 뱅가드의 운용 노하우다. 김영성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상무는 "KB온국민TDF의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생애주기 투자모델(Glide Path)에 따른 주식비중 조절에 있다"며 "이 부분이 바로 Vanguard가 글로벌 TDF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다. 총 보수 외 자산 배분형 펀드에서 중요한 피투자 펀드 보수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연 0.09% 수준으로 최저 보수로 인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윤지 기자 jay3@

KB자산운용/KB온국민TDF

인덱스펀드로 장투 유리...피투자펀드 年보수 0.09% 업계최저

KB자산운용의 KB온국민TDF 시리즈는 뱅가드의 검증된 생애주기 투자 모델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특화된 운용 전략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퇴직연령, 임금 인상률 등 종합적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해 변동성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KB온국민TDF의 가장 큰 장점은 업계 최저 수준 보수다. 총보수 외 자산배분형 펀드에서 중요한 피투자 펀드 보수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연 0.09% 수준이다.

글로벌 TDF 1위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협업해 개발한 투자 모델을 사용하는데 국내 인덱스펀드에 약 10%, 미국 증시에 상장된 뱅가드의 인덱스펀드에 약 90%를 편입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2만9000여 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해 장기투자에 유리하도록 저렴하게 설정된 보수가 특징이다.



국내에 출시된 TDF에는 재간접형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숨은 비용인 피투자펀드 보수가 존재한다. 이는 단기투자 시 누적 보수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고려하면 복리 효과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하기에 TDF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다.

KB온국민TDF는 가입자의 은퇴연령에 맞춰 채권혼합형인 2020·2025·2030부터 주식혼합형 2035·2040·2045·2050·2055까지 맞춤형펀드 8개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2035년 은퇴예정자가 가입한 'KB온국민TDF 2035'의 6개월 수익률은 14%로 타사 'TDF2035'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과 비교하면 3.6%포인트 낮지만, 2050년 은퇴예정자가 가입한 'KB온국민TDF2050'은 오히려 4%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아 동일 유형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로, 투자자가 주식 편입 비중을 고려해 비교하거나 특정 유형이 아닌 전반적인 시리즈의 수익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